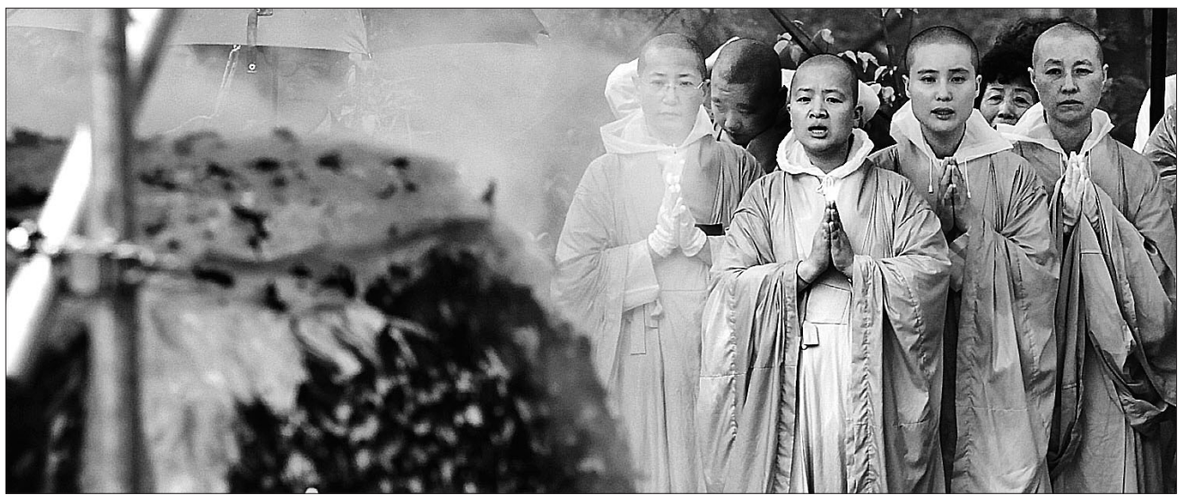
삼각산 큰 별 지니, 하늘도 울었다

무위당 진관 스님 3일 원적 5일 다비식 1000여 불자 눈물

우중에도 연화대 불자 운집
설정 스님 "산하대지가 기억"
명성 스님은 특별한 인연 소개
"맑고 검소한 삶, 후학 사표"


진관 스님 다비식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후학들이 배웅하고 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후학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서울 삼각산 진관사 중창불사의 주역인 진관사 회주 진관 스님이 7월 3일 법납 68년, 세납 89세로 원적에 들었다. 법기문중장으로 봉행된 5일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1000여 대중이 운집해 수행과 전법의 사표였던 진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다비식에 앞서 100여 만장을 앞세운 법구 이운부터 진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불자들의 모습은 부모를 잃은 듯 했다. 빗속에서 가사장삼이 젖어도 스님들은 만장과 운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연화대에 운구행렬이 도착하고 이날 증명법사인 설정 스님과 혜거 스님 등 스님들이 거화했다. 진관 스님의 상좌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의 "스님 불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라는 선창 아래 착화가 진행됐다.

다비식에 함께 한 사부대중은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을 함께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영결법요, 헌다 및 헌향, 행장소개, 추모입정, 영결사 및 법어,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영결법요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스님과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어장 동희 스님이 집전했으며 행장 소개는 법기문중 회장 본각 스님이 맡았다.

본각 스님은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전법포교에 있음을 예견하시고 유치원 건립을 비롯해 군법당 불사 등에 앞장섰다. 부처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소외된 노인과 아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스님의 맑고 검소한 삶은 제자와 신도들이 옷깃을 여미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영결사를 맡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은 "묵묵히 수행정진하신 청정한 설법으로 제자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신 이 도량에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며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전법교화의 원력을 세워 홀연히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처처가 스님이 돌아갈 길이요 두두물물이 머물 고향이다"며 "현전한 산하대지가 스님의 자성을 떠나지 않았고, 삼라만상이 스님의 본분을 떠나지 않았다"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스님을 사표로 후학들은 공덕 짓는 일에 기뻐하며 모든 공덕을 일체중생에 남김없이 회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아무도 모르게 금세 오셔서 불자들의 아름다운 행원에 미소로 화답해주소서"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조사에서 진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명성 스님은 "스님께서 저의 학창시절 마치 학부형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보낸다"며 "1984년 전국비구니회 출범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오늘날 비구니 위상을 만드는데 족적을 남기셨다. 그 걸어오신 길과 적정열반의 큰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관 스님의 49재는 7월 9일 초재에 이어 16일 2시, 23일 12시, 30일 10시, 8월 6일 10시, 13일 10시, 20일 11시 49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시대 선지식 · 보현보살, 진관 스님



89세 평생 보현행원 수행
삼각산 진관사 불사 일궈내
경찰법당 건립 등 전법교화

무위당 진관 스님은 평생을 보현보살의 행원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간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다.

무위당 진관 스님은 1928년 9월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부친 최웅순과 자모 박태순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1948년 21세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원허당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사문의 행해를 익힌 진관 스님은 1948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과 경학을 배우고, 한암 스님으로부터는 참선법을 직접 지도받았다. 1950년 23세에는 쌍계사 국사암에서 정진을 시작해 대성암 · 견성암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60년 33세에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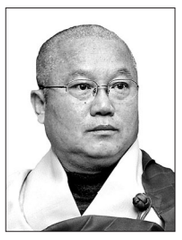
진관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중흥시킨 것이다. 1963년 36세에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진관 스님은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도량을 1965년 대웅전 낙성을 필두로 1980년까지 15년 간 중창해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 진관 스님의 원력이 상응해 1977년부터 다시 봉행되기 시작한 '진관사국행수륙재'는 2014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받게 됐다.

진관 스님은 전법 포교와 불교 인재 육성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1996년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진관사 부설 코끼리 유치원을 건립했으며, 어린이 · 청소년법회 · 군법당 건립 및 경찰법당의 불사 등에 앞장섰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2010년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을 설립하고 소외된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4년부터 조계종 8대, 9대, 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소임을 2003년까지 맡으면서 전국비구니회관건립과 비구니의 위상 정립에 진력했다. 진관 스님은 평생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며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부처로 섬기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3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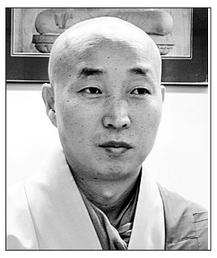
재단법인 선학원 제19대 이사장에 법진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법진 스님의 이사장 선출은 선학원 사상 최초인 3선으로 스님은 제17대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선학원은 7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법진 스님을 추대했다.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100년 역사와 미래 100년의 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임원 스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추대를 받아들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총무이사 송운, 재무이사 정덕, 교육이사 철오 스님 등 7인에 대한 연임도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직선제 실현, 미래지향 승가 만든다"

조계종 교육위원 허정 스님
7일 교육원 세미나서 주장



"'함께 바른 견해를 갖는 일'도 '함께 균등하게 나누는 일' 없이는 승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균등하게 나누는 일의 우선 과제는 종단 지도자를 뽑는 선거법을 대중이 원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위원 허정 스님〈사진〉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7월 7일 공동개최한 '현대사회와 승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정 스님은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바른 견해를 갖는 일'과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이 미래지향적 승가상을 완성시키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정 스님은 "바른 견해는 교육을 통해, 이익의 균등배분은 사찰운영과 승려복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조계종은 2009년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교육체계를 혁신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승가상은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는 소수 기득권끼리 돌아가면서 종권을 나눠 가져 다수의 대중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대중은 직선제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돼야 종단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역사 속의 승가상'을 발표한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는 "현대 승가는 분명 과거와 다른 환경에 놓여있지만, 승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면서 "이상적인 승가상의 확립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도 교화도 승가가 자정능력을 잃지 않을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 부응하고 존경받는 승가상은 기본이 바로 서고, 승가 차원에서 실현된다면 절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비구니계 갈등, 다시 촉발되나

비구니회, 7일 비구니종회의원 제명… 의원들 "반목 아닌 화합을"

전국비구니회가 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 전원을 회원 제명했다. 11대 비구니회 집행부 출범으로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던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양상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7일 제2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 계환스님과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회원 제명키로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총회에서 결의한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제명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전원사퇴 △전국비구니회 결의사항 에 대한 종단의 수용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첫 공식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7월 6일 발표하고 갈등과 반목이 아닌 비구니 승가의 원융화합을 요청했다.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은 "이 같은 모습이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10대 집행부는 8억2000만원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제11대 회장선거를 원만하게 치러냄 △중앙종회의원 자격기준은 종헌종법에 어긋나지 않음 △중앙종회의원 선출의 적법성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됨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제명 결의는 위법함 등을 주장했다.

이어 "지리한 비판과 비난의 한계를 긋고 비구니스님들의 목전에 닥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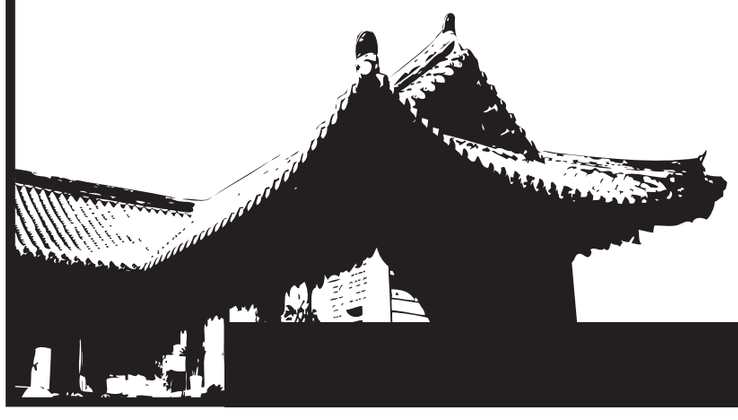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